베이징올림픽 D-36

백지란 통신원의

지금 베이징에선

엄격해진 출입국·비자연장 인색

테러 방지 대책에 외국인들 곤욕

맑아진 공기, 녹음 짙은 거리, 질서 있는 승차, 새로 단장한 지하철….

베이징 시민들은 요즘 웃음이 귀밑까지 걸렸다. 수년 혹은 십수 년이 지나서야 이뤄질 수 있는 일들이 한꺼번에 실현됐기 때문이다. 올림픽이 가져온 축복이다.

반면, 외국인들은 올림픽 탓에 된서리를 맞고 있다. 테러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라는 명분으로 입국하거나 체류하려는 외국인들을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 사례는 비자발급 제한이다. 직업 비자나 유학비자 소지자를 제외한 모든 외국인에 대해 7월1일자로 복수비자 발급이나 기존비자의 연장을 중단했다.

때문에 단기비자로 체류를 연장해가며 사업해온 외국인들은 당황해 하고 있다. 중국에서 8년간 시장조사업체 '아쿠아 바이오트로닉'을 운영하며 250만 달러(약 26억원)를 투자해 온 미국인 존 매캘리스터 씨는 비자 연장이 안 돼 사업장을 태국 방콕으로 옮겨야 하는 신세가 됐다. 사업 차 체류중인 교민 강 모(43)씨도 비자연장을 위해 관련 서류를 제출했으나 명확한 이유도 없이 접수를 거부당했다. 중국 내 유력기관의 도움을 받아 서류를 보강한 뒤에야 겨우 한 달을 연장받았다. 강씨는 "달라진 기준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어 답답하다. 한 달 후에는 목돈을 들여 불법연장이라도 해야 할 형편"이라고 한탄했다.

올림픽을 앞두고 중국 당국이 보안을 강화하고 나선 가운데 한 남자가 베이징 지하철 역에 설치된 검색대에서 소지품 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처럼 중국 내 연장이 어렵게 되자 부득이 단수비자라도 발급받기 위해 귀국하는 한국인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어렵게 비자를 받아오더라도 입국한 뒤 이를 다시 연장하려면 미화 3,000달러 이상이 예치된 잔고 증명서를 제출해야 연장이 가능하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아예 귀국을 결심하는 한국인들도 점차 늘고 있다.

올림픽 기간 중 외국인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3가지다.

첫째, 여권은 24시간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한다. 불심검문을 받을 때 여권이 없으면 강제로 출국 될 수 있다.

둘째, 중국인과의 충돌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강제 출국의 빌미가 될 수 있다.

셋째, 가라오케 등 불법 업소 출입을 삼가야 한다. 최근 한 한국업체 직원들이 매매춘 행위로 적발돼 강제 구류된 사례가 있다. 이들은 결국 회사에서도 면직됐다.

그 외에도 불편은 여러 가지다. 지난달 29일부터 지하철에서는 모든 짐에 대해 안전 검사를 한다. 관광객을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간주한다는 오해를 받을 만한 조치도 있다. 일부 호텔은 투숙하는 외국인들의 여권 앞면을 복사해 공안국으로 보내고 있다. 한 교민은 "안전은 좋다. 그러나 지나친 건 반대다. 게다가 무례한 건 더 반대다. 중국이 올림픽으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까 걱정"이라고 일갈했다.

베이징 올림픽의 주제는 '하나의 세계, 하나의 꿈(One world, One dream)'이다. 이 주제가 표어로만 끝나게 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jrjkrccm@paran.com

1일 밤 9시30분 귀국➡0시 집 도착➡2일 오전 대회장 도착

신지애 2시간만 자고도 '굿 샷' 2위

홍 란 4언더파 단독 선두

레이크사이드여자오픈 1R

지난 1일 오후 9시30분 인천국제공항 도착. 경기도 수지에 있는 집에 자정에 도착. 짐 정리를 하고 2일 오전 대회장에 도착하는 동안 잠을 잔 것은 단 2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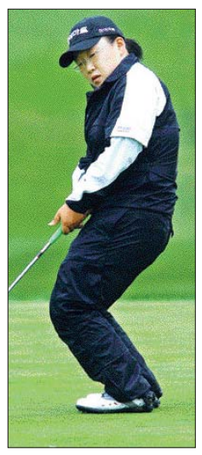
'지존' 신지애(20·하이마트)가 2일 경기도 용인 레이크사이드 골프장(파72.6천533야드)에서 개막한 한국여자프로골 레이크사이드여자오픈 1라운드에서 졸린 눈을 비비면서도 보기 없이 버디 3개를 골라내 3언더파 69타로 공동 2위에 올랐다.

KB국민은행 스타투어 2차대회 우승자 홍란(22·먼싱웨어)이 보기 2개에 버디 6개를 잡아내며 4언더파 68타로 단독 선두에 오른 가운데 신지애와 홀인원을 기록한 김혜윤(19·하이마트) 등 모두 11명이 1타 뒤진 공동 2위에 자리해 초반부터 치열한 우승 경쟁을 예고했다.

미국 미네소타주 에디나에서 열린 US여자오픈을 끝내고 숨 돌릴 틈도 없이 한국행 비행기를 탄 신지애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강행군 속에서도 침착하게 경기를 풀어갔다. 정확한 아이언샷으로 핀을 공략한 신지애는 2번홀과 5번홀(이상 파4)에 이어 8번홀(파5)에서 버디를 잡아내 전반에만 3타를 줄였다.

신지애는 후반 들어 힘이 달리는 듯 자신이 샷을 할 차례가 오기 전에 잔디에 털썩 주저앉아 쉬기도 했지만 실수 없이 9개홀을 파로 막았다.

5번(파4), 6번홀(파3)에서 연속 보기를 적어냈던 홍란은 "초반에 보기를 했지만 자신있게 치자고 생각하니 좋은 성적이 나왔다. 2주 전 우승을 하고 나니 부담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김혜윤은 버디 4개에 보기 3개를 곁들이는 어수선한 플레이였지만 140야드 짜리 6번홀(파3) 홀인원이 컸다. 7번 아이언으로 친 티샷이 핀 앞 3m 지점에 떨어진 뒤 몇번을 튀기고 그대로 홀로 빨려 들어갔다.

김혜윤은 "샷을 한 뒤 티를 줍느라고 볼이 들어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 생애 두 번째이자 공식 대회에서 처음 기록한 홀인원이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장미란 '올림픽 금' 유리해졌다

中 경쟁력 없는 선수 제외 방침

라이벌 무솽솽 대상 포함될 듯

2008 베이징올림픽에 출전할 남녀 역도 국가대표 9명이 최종 확정됐다.

대한역도연맹은 2일 베이징올림픽에 나갈 선수로 금메달 기대주 장미란(25·사진)을 비롯한 여자 4명과 남자 77kg급 유망주 사재혁(23)이 포함된 남자 5명을 연맹 상임 이사회를 거쳐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맹은 지난 해 국제역도연맹(IWF) 세계 랭킹과 지난 4월 열릴 국내 대표 선발전 등 최근 역도 경기 결과를 토대로 이들은 선발했다고 설명했다.

오승우 감독이 이끄는 여자 대표팀에는 75kg이상급 장미란을 비롯해 48kg급 임정화(22)와 53kg급 윤진희(22), 63kg급 김수경(23)이 포함됐다.

또 올해 코리아컵 왕중왕 역도대회에서 한국신기록을 세 차례나 수립했던 사재혁과 77kg급 김광훈(26), 62kg급 지훈민(24), 69kg급 이배영(29), 105kg이상급 전상균(26)은 이형근 감독의 남자 대표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역도연맹 안효작 전무는 "장미란을 포함해 윤진희, 사재혁의 경우 금메달까지 노려볼 만하다"면서 "장미란, 윤진희와 라이벌 관계인 중국 역도 선수들이 올림픽에 출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일단은 나온다는 가정 하에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올림픽 개최국으로서 자동 출전권을 따낸 중국은 남자 6장, 여자 4장 등 최다 쿼터인 10장을 확보한 가운데 메달 경쟁력이 떨어지는 체급에는 선수들을 출전시키지 않을 계획이다. 베이징올림픽에서는 전체 15개 금메달(남 8개,여 7개)이 걸려 있다.

장미란은 최대 라이벌인 무솽솽(24·중국)이 출전하지 않을 경우 여자부 최중량급에서 세계 2~3위와 비교해 기록상 크게 앞서 금메달이 사실상 확정적이라 할 수 있다.

광주체고 신형근 대회新

남고부 평영 50m '금'

대통령배 전국 수영

신형근(광주체고 3년)이 제27회 대통령배 전국수영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신형근은 2일 전북 완산실내수영장에서 열린 대회 남고부 평영 50m에서 30초01로 2위 부산체고 최규웅을 제치고 대회신기록으로 금빛 물살을 갈랐다.

특히 신형근은 지난해 대통령배 대회에서 이창봉이 세운 30초69의 기록을 이번대회 예선에서 30초20으로 경신한 뒤 다시 결선에서 30초 01로 대회신기록을 갈아치웠다.

이날 고영호(광주 상무고 1년)는 남고 자유형 400m에서 4분07초22로 1위 경기 부명고 김대훈에게 뒤져 은메달에 머물러 아쉬움을 남겼다.

최수민(HI 코리아)도 여자일반 배영 200m에서 2분20초32를 기록했으나 1위 박종원(제주시청)에게 뒤져 안타깝게 은메달을 획득하는 데 만족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美 쿨린 세계新

女 배영 100m

나탈리 쿨린(26·미국·사진)이 이틀 연속으로 여자 배영 100m 세계신기록을 작성하며 2008 베이징올림픽 금메달 꿈을 부풀렸다.

쿨린은 2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펼쳐진 베이징올림픽 미국 대표 선발전 셋째날 여자 배영 100m 결승에서 58초97에 물살을 갈라 가장 먼저 터치패드를 찍었다. 전날 열린 예선에서 59초03으로 자신이 지난 2월 세운 59초21의 세계 기록을 0.18초 앞당겼던 쿨린은 결승에서 0.06초를 더 줄이며 올림픽 금메달을 사실상 예약했다.

남자 배영 100m에서도 세계 기록이 터져 나왔다. 배영 세계 최강 애런 페어솔은 이 종목 결승에서 52초89로 우승, 자신이 지난해 3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세운 52초98의 기존 기록보다 0.09초 빨랐다. '수영황제' 마이클 펠프스는 자유형 200m 결승에서 1분44초10으로 가장 먼저 골인하며 대회 첫날 개인혼영 400m에 이어 두번째 올림픽 출전권을 따냈다.

스포츠 중계

3일(수)

▲2008 메이저리그〈LA다저스 : 휴스턴〉(08 : 55·Xports)

▲2008 일본 프로야구〈요미우리 : 야쿠르트〉(17 : 45·SBS스포츠)

▲2008 프로야구〈SK : LG〉(18 : 00·KBS N SPORTS) 〈롯데 : 삼성〉(18 : 20·MBC ESPN) 〈두산 : 한화〉(18 : 20·X-ports) 〈우리 : KIA〉(18 : 20·SBS스포츠)

▲2008 윔블던 테니스 여자단식 준결승(22 : 00·MBC ESPN)

4일(목)

▲2008 PGA AT&T 내셔널 1R(03 : 00·SBS골프)

광주일보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한 써비스와 고객의 입장에서 모시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는 — 독자서비스국(062)220-0551

맛을찾는사람들 | 광산구 월곡동 그린한방병원 옆 | 보양탕,추어탕,오징어불고기 전문 | 대표 안 미 영 | ☎(062)956-8020
한솥영양돌솥밥 | 광산구월계동 무등교회옆 | 영양돌솥밥전문 | 원장 강 성 천 | ☎(062)973-7607
빅플러스사진관 | 광산구 쌍암동 쌍암공원건너 롯데마트옆 | 증명사진,아기사진,가족사진,디지털사진 | 대표 정 남 수 | ☎(062)972-8808
웨빙시대 | 동구 학동 정도프라자 맞은편 | 생삼겹,목살,항정,갈비찜,비빔밥,생태탕,알탕, 알밥전문 단체예약손님환영 | 대표 양 회 수 | ☎(062)222-4858
불교승복 | 남구 방림2동 우영타워 정문앞 | 철방석,가사,승복맞춤전문 전화주문시 출장환영 | 대표 고 성 자 | ☎(062)674-0888
만찬백반뷔페 | 목포시 상동 샹그리아호텔옆 | 뷔페식사 6,000원 뷔페 맑은샘물 같은 자연의 맛입니다 | 대표 이 구 순 | ☎(061)282-8988
대게마트(목포점) | 목포시 상동 건국상제리제102호 | 대게,킹크랩 전문 | 대표 홍 성 민 | ☎(061)285-1198
화산회관 | 광산구 월계동 신협옆 | 매운갈비찜 뽕잎삼겹살전문 | 대표 김 두 하 | ☎(062)971-0121
풍천장어전복 | 광산구 월계동 부영사우나 건너편 | 장어 · 전복전문 단체손님환영 | 대표 한 동 석 | ☎(062)974-2822
첨단골바지락칼국수 |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학 신축예정부지 건너 | 바지락칼국수,명품콩물국수,명품세발동지죽, 팥죽,아구찜 | 대표 한 옥 임 | ☎(062)974-1191
남홍당한약방 | 동구 소태동 지하철3번출구 무등중입구 | 축농증,알레르기비염,감기기침약,특효처방전문 | 대표 김 추 기 | ☎(062)222-3938
광주여성인력협회 | 동구 학동 (구)남광주역뒤 건너편4거리 | 식당,파출부,간병일,아기보기,의료기시업,전단 | 심부름,일하실분 쓰실분 24시간 상담환영 | ☎(062)232-5165~6
복터진집 | 목포시 상동 평화광장과 우미5차사이 | 복요리,복샤브샤브전문 | 대표 박 경 우 | ☎(061)285-8884
어머니고등어 | 목포시 상동 하당평화광장 앞 | 대표 주 미 라 | ☎(061)285-4598
여수아나고 | 광산구 월계동 승덕고 월계교회뒤 먹자골목 | 분장어구이전문 자연산100% | 대표 김 영 철 | ☎(062)973-2510
기아자동차호남대리점 | 광산구 신가동 신기병원 맞은편 | 신입 · 경력사원수시모집 | 차량에관한 모든사항을 해결해 드립니다! | ☎(062)954-1800~2
서봉풍수철학원 | 북구 중흥동 평화맨션 정문 중간 | 사주,궁합,작명,택일,진로,풍수지리 | 역리사 강 민 재 | ☎(062)267-0258
나주회관 | 남구 방림동 천변도로변 미화어린이집입구 | 보양탕,삼계탕,옻닭 각종탕 전문점 | 대표 이 기 섭 | ☎(062)653-8508
광주개인택시매매상사 | LPG중고차 | 매입,매도,상담,폐차,대행 | 본촌동☎(062)571-0764 | 신안동☎(062)525-7989
사계절복집 | 목포시 상동 평화광장 우미오션빌6차 옆 | 복시시미,복매운탕,복지리,아구찜,아구탕전문 | 대표 김 경 식 | ☎(061)284-0213
곱창명가 | 북구 용봉동 대화아파트 앞 | 양념막창구이,막창전골,양념곱창구이,소곱창전골, 곱창볶음 전문 | ☎(062)528-5599
김가네첨단산월점 | 광산구 월계동 부영@ 114동건너편 | 즉석김밥전문점 | 도시락 단체주문, 포장환영 | ☎(062)974-0029
부동산365 | 광산구 월계동 쌍용아파트 상가내 | 아파트 상업토지,수완지구수도권 상담환영 | 대표 임 윤 형 | ☎(062)971-3651
LG공인중개사 | 광산구 월계동 LC타워 건너 | APT,상가,토지,경매,투자상담 성실,정직 | 상무 고 경 주 | ☎(062)971-0892
한일유리 | 동구 문림동 증심사입구 동산미을 청심병원옆 | 유리시업부,금속,창호시업부,조립식판넬시공 | 대표 장 창 원 | ☎(062)227-0707
광일푸드시스템 | 북구 임동 일신방직 건너 대원시장입구 | 대표 임 영 길 | ☎(062)525-9438